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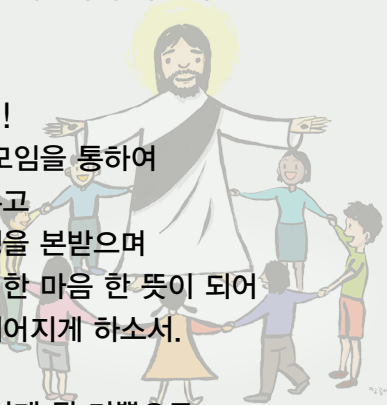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1] 주님초대하기
-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연중 제5주일(2월 9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마태 5,13-16)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6)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교회로부터 빛을 받아들입니다. 이 빛은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날마다 행하는 선과 믿음을 확장시켜 줍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21장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저희가 당신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마태오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15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16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마태 5,13)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마태 5,16)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통해 하느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하느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며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키고자 하

는 일에 수많은 유혹들이 생기며 방해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해 때문에 때때로 우리 자신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느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21장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연중 제6주일(2월 16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마태 5,17-37)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13장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가 당신을 닮아 의롭게 되게 하소서.
-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마태오복음 5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9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 나라에서 큰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2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1 ‘살

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23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25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2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닢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27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29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30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31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3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33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 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3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35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



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36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7 너 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마태 5,17)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의무로만 생각하며 귀찮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마태 5,22)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맞지 않거나 내 이야기를 잘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워한 적은 없습니까?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충실

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의무들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른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의무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들을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율법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이를 내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청하며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13장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형제애를 나누는 소공동체

—호계본당 코오롱 남성소공동체 반장 조훈(토마스)—

소공동체가 도입되어 본당 조직이 반, 구역 중심으로 개편되던 때, 전임 회장님과 몇몇 형제님들은 ‘남성 소공동체’ 모임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몇 개월간 의논하고 준비한 결과 2004년 봄, 전임회장님 댁에서 열여섯 명의 형제님들이 모여 호계본당 코오롱 남성소공동체가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제님들만 모였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이후 각 가정을 돌아가며 모임을 가지고, 가정방문 기도로 소공동체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옛말에 그 집의 사립문을 열고 들어가면 근심 걱정이 없다는 말처럼 그 가정에 근심을 위해 기도하고, 길흉사에도 자리를 함께 하며 축하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이렇게 소공동체 모임을 통해 형제애가 깊어지며 4년의 시간이 지날 때 쯤,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자매님들의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여 나눔을 하면 그만이지만, 다과나 여러 준비를 해야 하는 각 가정의 자매님들의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후 자매님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코오롱 아파트 근처에 있는 본당 자매님이 운영하는 식당을 예약하여 그곳에서 지금까지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7월과 12월에는 반원들의 자매님들과 신부님과 수녀님도 초대하여 모임을 가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 구성원 세대교체도

많이 되었지만 열일곱 명의 반원들은 꾸준히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7시 30분에 모여 함께 복음을 읽고 나눕니다.

지금까지 소공동체 모임 안에서 형제적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이 우애를 바탕으로 이웃에게 다가가 하느님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소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소공동체 선교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

1. 소공동체 안에서 선교계획

1) 선교계획수립

소공동체에서 가장 시급한 선교문제를 논의한 후 분야별(모임의 불참자, 냉담자, 입교 대상자 등)로 목표를 선정합니다. 본당 선교분과의 연간 계획을 참조하여 이에 상응하는 소공동체 선교활동 시기를 결정하여 소공동체의 환경에 맞는 선교방법을 선택합니다.

2) 선교 대상자 선정

선교 대상자는 교적과 예비신자 대장을 참고하여 선정합니다. 냉담신자는 냉담기간 및 세례기간, 가족 구성원의 신자 수 등 대상 가정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과 활동자를 선정합니다. 예비신자 탈락자는 명단을 받아 탈락 시기와 탈락 원인, 연령 및 여건을 파악하여 활동방법과 활동자를 선정합니다.(서신 발송, 1차 방문, 2차 방문)

3) 선교 대상자의 분류 및 명단 작성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 선정합니다.

-냉담신자 : 세례 받은 본당과 연도 및 마지막 판공성사 연도

-예비신자 : 개인 신상에 관한 것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특이 사항 등을 작성한 후 소공동체 봉사자 및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나누어 주되 사생활에 대한 문제는 비밀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4)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

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바치는 공동기도(화살기도, 매일 묵주기도 몇 단 이상)와 개인적으로 바치는 기도(방문이나 직접 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기도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음)를 하도록 합니다.

-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행하는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2단계 지도자용 지침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사목국 일정

■ 소공동체장 교육

* 기존 '신임소공동체장 연수'가 '소공동체장 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임 소공동체장 및 재교육을 원하는 소공동체장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3월 2일(월) 10:00~15:30
- 장 소 : 교구청 1층 대강당
- 대 상 : 신임과 재교육을 원하는 소공동체장
- 참가비 : 1인 10,000원(점심 제공)
- 준비물 : 필기구, 개인컵
- 신 청 : 교구 공문을 참조하여 본당을 통해 신청

■ 소공동체장 연수

지 구	일 시	장 소
마산지구	3월 26일(목) 오후 1시~4시	양덕동성당
창원지구	4월 2일(목) 오후 1시~4시	사파동성당
진주지구	4월 16일(목) 오후 1시~4시	옥봉동성당
거제지구	4월 23일(화) 오후 1시~4시	고현성당

- 참가비 : 1인 5,000원
- 준비물 : 필기도구, 개인컵
- 신 청 : 교구 공문을 참조하여 본당을 통해 신청
- 문 의 : 055)249-7021~3